

제7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제7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이 결정됐습니다. 80여편의 응모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김용숙씨의 '된장 사가시는 부처님'을 비롯 모두 7편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평소 체험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나라의 진솔한 신행 이야기들이 한해 시작하는 우리들의 가슴을 진잔하게 적셔줄 것입니다. 이번 신행수기에 응모해 주신 많은 불자들이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상 (유마상)

된장 사가시는 부처님
김용숙 (대전시 서구 둔산동)

◇현대불교신문사장상(우수상)

불교와의 첫 인연
김규년 (울산시 남구 무거동)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포교사로서 가야갈 나의길
장만수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특별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부처님이 안겨준 행복
김숙희 (경남 진해시 용원동)

◇특별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그림자
장원각성 (광주시 서구 농성2동)

◇특별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속죄의 그날까지
최종해 (전남 무안군 일로우체국)

◇특별상 (진흥원 이사장상)

짧은 출가로 시작된 인연
이지숙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금강경 메주는 독경과 정진으로 만들어져요”

■ 신행수기 대상 수상작

된장 사가시는 부처님

김용숙

“딩동” 다녀왔습니다
딸아이가 들어오면서 ‘엄마! 신행수기 다 쓰셨어요?’라고 묻는다. ‘아니, 아직’
‘엄마, 엄마는 저보다 의지가 약하신가 봐요, 저는 학원에 가서 밤 12시가 넘은 이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바쁜건 알지만 힘 내세요. 지금부터 엄마가 글을 쓰시면 제가 컴퓨터로 워드를 쳐 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인 딸의 말을 듣고 나니 졸린 눈이 번쩍 떠졌다. ‘그래, 엄마도 열심히 할게.’
내가 한 장씩 글을 쓸 때마다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원고를 가지고 가서 워드를 쳤다. 컴퓨터에 앉아있는 딸아이가 마치 부처님처럼 보였다.

에...
올해 금강경 독송회 통합법회에서 들은 법문이 가슴속에서 되살아난다.
“아상을 닦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금강경독송회는 금강경 7독 수행과 부처님을 공경하는 공덕으로 아상을 닦는 단체인데요. 부단한 수행과 하심 하는 마음이 서지 않으면 자기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하심을 해야 복도 지어지지 아상이 높으면 공덕도 없고 복도 줄어들어납니다. 한마음으로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초날 기운을 내서 정진 수행하라는 스님의 당부말씀이 뼈와 살과 마음에 가득 차 올랐다. 부처님 전에 복을 지어 올리고 마음을 닦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작복(作福)’을 마음속으로 계

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인스턴트보다는 신도불이를 먹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된장국을 끓여 봤을 뿐이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들친구 엄마들 극성에 독송회 된장을 구하다가 한 집 두 집 갔다 주게 되었고, 금강경독송회 메주 불사에 동참한 수자님께 들은 금강경 메주 이야기도 함께 전해 주었다. 수자님의 메주 이야기는 이랬다.
“금강경메주”는 금강경 독경과 정진을 하는 수행자들이 새벽 공부를 마치고 만들기에 ‘금강경 메주’라 합니다. 콩 상태에서 메주로 완성되기까지 독경과 정진으로 메주가 만들어집니다. 출가자들은 시주에 의존하지 않고 메주 불사를 하여 자급자족하고, 어려



사찰 법향 담긴 무공해 토종 된장 떨고 있는 이웃에 주고 싶은 생각이...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 보았다. 무얼 하고 살았나? 보여지는 것은 손가락 새로 새나가는 모래알 뿐이다. 부처님께서 마음자리에 복 지으라 하셨는데 내 마음속의 자리는 모래알 만하다.
나는 몸에 살이 찌면 돈 들여서 헬스, 에어로빅, 수영으로 체형을 유지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면서도 마음의 비만을 없애고 정신을 키우는 일엔 그동안 방관하는 자세로 지냈다. 비대해진 몸과 마음을 체중계 위에 가만히 올려놓는다. ‘앗! 부처님.’
위협수위를 넘은 지 이미 오래 되었다. 처사랑에 가까운 비만증. (금강경)을 다시 읽는다.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에 불이 제사위국기수급고독원하사 여대비구중 천이백오십인으로 구하시다. 이 시

속 되뇌어 본다. 내가 ‘복’이란 걸 체감하게 된 것은 1년 전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학교 공개수업에 갔었다.
“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적어 보세요.”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활동을 지켜보시다가 아들의 그림을 컴퓨터 화면에 올려놓으시고는 “와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큰 준상이가 된장국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피자, 치킨, 불고기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준상이 처럼 된장국도 잘 먹어야 건강해 질 수 있어요.”
선생님의 칭찬을 듣는 아들 모습이 유난히 의젓해 보였다.
그 날 아이에게 관심이 많은 신세대 엄마들이 준상에게 된장국을 어떻게 끓여주고, 어디서 사느냐는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물었다. 그러나 나는 사실 된장

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결식 아동 돕기도 합니다. 이른 새벽에 우리 콩의 구수한 내음이 도량과 200개가 넘는 장독대에 고루 퍼지게 되면 장작불을 약하게 조절하고, 가마솥에서 뜬이 든 콩을 소쿠리에 퍼내어 물기를 빼내고 분쇄한 후, 나무틀에 찍어내고 비빔이 잘 드는 하우스에서 1차 건조시킨 뒤, 휴방으로 옮겨 20일 건조시킨 다음에 피움방에서 33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계속 금강경 독송과 정진테이프를 틀어 주며 완전히 발효 될 때까지 온 정성을 다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메주를 아랫목에 모셔놓고 당신이 쓰시면 깨끗한 이불을 덮어 피우면서 정성을 다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 다음 천연 바람과 햇살을 받으며 숙성·건조시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기를 마친 수자님은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 메주라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봉한 알 한 알에 정성을 다했다며 인연 있는 불자들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부처님 시봉을 열심히 하길 발원하셨다. 요즘 수입 콩에 황국균을 주입시켜 열 건조 시킨 메주로 만든 된장이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떠올라 한겨울에 만드는 무공해 메주가 이야기가 가슴속에 와 닿았다. 그래서 사찰의 법향이 담긴 토종 된장을 내 아이만 먹일게 아니라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과 결식 아동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 친구 엄마 덕분에 된장을 사겠다는 이웃들이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다. 토종 된장을 전해주고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

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느껴졌다. 난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하루, 이를 여러 사람을 겪게 되다 보니 잘난 아상에 습습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예요? 수입이 아니예요? 뭘 섞었나요?”
저 사람이 날 뭇로 보고 저러나 하면서 초 간격보다 더 빠르게 치밀고 올라오는 진심 때문에 몸과 마음은 솟망이 가 되어 갔다.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 보았다. 내 마음은 개처럼 말하는 사람을 보면 개를 따라가고, 고양이처럼 말하는 사람을 보면 고양이 흉내내고, 여우인데도 여우가 아닌 척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이렇다보니 마음 보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열심히 직장이나 다니고 아이들 키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불광불교미술원

원장 박갑용

경기도 가평군 하천 1리 418-2
☎ 031)584-3952

불원 미술원

원장 김진구

서울 강동구 성내 2동 136-6
☎ 02)477-9178

선불화공방
명화 / 벽화 / 개칠

내 마음자리가
정도를 볼때
손끝의 붓은
그곳을 그렸습니다

참나 박경귀 합장
110-220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61-1
작업실 733-0730
011-226-0730
자택 733-0731

(주)파고다

대표 윤해성(山門)

임직원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창동 727-2
전화 : 062)961-0404